

지역 소식

2012 전국청년대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20 12 전국청년대회의 닷이 올랐다. 전국청년대회는 2012년 8월 11일에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해 15일에 끝을 맺는다. 7개월 정도가 남았지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12월 18일에는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에서 '2012 전국청년대회 소개 모임'(이하 소개 모임)이 있었다. 전국의 모든 스테이크와 지방부 회장이 참석하고 지역 칠십인들과 대회 기획위원, 그리고 준비위원과 운영위원까지 참석한 이 모임에서는 전국청년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이루어졌다.

2012 전국청년대회의 영문 명칭은 '2012 All Korea YSA Conference'로 30세 이하의 청년 독신 성인을 뜻하는 YSA(Young Single Adult)가 쓰였지만 참석 대상은 독신 성인(Single Adult)까지 확대되었다. 즉, 한국의 모든 후기 성도 청년들이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대회 일자는 2012년 8월 11일 토요일부터 8월 15일 수요일까지이고 장소는 충남 논산에 있는 건양대학교이다.

대회 주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로, 이는 제3니파이 27장 27절의 말씀 중 한 부분이다. 대회 주제와 연관된 일곱 개의 목표도 수립되었다.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기로 결심한다.
2. 미래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신앙, 성품, 능력을 발전시킨다.
3.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한다.
4.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을 하도록 준비한다.
5. 또래 친구들과 서로 알고 우정을 쌓을 기회로 삼는다.
6. 자신감을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며, 교회 표준에 따라 희망찬 미래를 준비한다.
7.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며 세상을 이길 힘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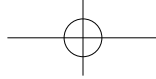
이번 청년 대회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하우스 활동’, ‘인생 극장’, ‘안식일 모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운영위원장인 조용현 형제는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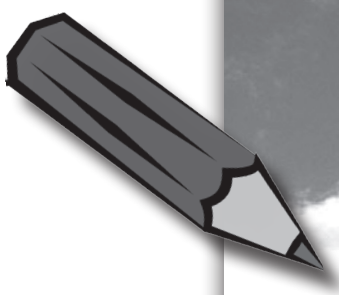
모임에서 “이번 대회의 활동은 최고의 모임, 참여를 통한 성장, 비전, 영성 훈련, 그리고 영광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채 준비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역 칠십인이자 대회장인 김창호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2009년 YSA를 준비하면서 순간순간 영을 느꼈습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도 영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이 대회를 신앙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 이 대회의 주제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각 단위 조직 게시판에는 2012 전국청년대회 포스터가 붙었다. 준비 진행 상황에 따라 앞으로 두 차례의 안내 모임이 각 스테이크별로 있을 예정이다. 항해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고, 청년 독신 성인들은 배에 오를 일만 남았다. 시간은 8월을 향해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다. ■





또 내가 너희에게 줄 공의로운 심판을 좇아 너희가 이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될 줄을 너희는 알라,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2012 ALL KOREA YSA CONFERENCE

“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

—제3니파이 27:27—

2012 전국청년대회

2012년 8월 11일(토)~8월 15일(수) 건양대학교 (논산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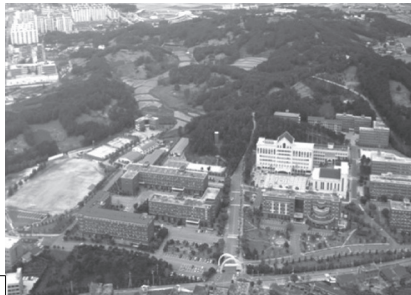
<http://ysa.lds.or.kr> (2012, 3, 1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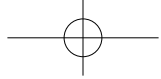
2012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2012 전국청년대회는 청년 독신 성인 (YSA)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모든 후기 성도 청년들이 그 참석 대상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자의 연령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다.



3월 1일에 개설되는 공식 홈페이지 외에도 전국청년대회 홍보 카페(<http://cafe.naver.com/ldsystsa>)와 페이스북(검색 창에서 '2012 전국청년대회' 검색) 등에서도 홍보 자료를 보고 청년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다.





복지의 ¹⁷ 기본원리 ABC 조용한 봉사 SERVICE

20 11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 제7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께서 이 영감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분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시며, 또한 그것은 계명이기도 합니다.” (선을 행할 기회,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이러한 선지자의 권고와 지역 회장단의 촉구에 응하여, 수천 명의 북아시아 지역 교회 회원들은 개인으로, 소규모 지역 그룹으로, 그리고 스테이크와 연합 스테이크 차원의 조직을 통해 스스로는 일을 할 여력과 여건이 안 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조용히 봉사하며 일했습니다. 이러한 봉사의 극히 일부는 주목을 받고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모든 봉사의 행위는 하나도 빠짐 없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조용한 봉사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흥미롭게도, 도움을 줄 것인가 받을 것인가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쪽을 택합니다. 물론 이는 선을 행하고 구주를 따르려는 마음에서 온 것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께서 세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집에 음식을 가져다준 최근의 경험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집에 도움이 필요함을 그 어린이들의 부모가 알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일회장단 일원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을 결국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로 성약을 맺은 것입니다. (모사이아서 18:9~10 참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이들의 친절한 행위를 받기셨습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을 때 음식을 찾아나선 제자들,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인, 그리고 그분께서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을 위로한 천사의 기사를 봅니다. 또한 구주께서 한 남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도록 부탁하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어링 회장님과 구주께서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교리와 성약 98:1)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필요한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봉사: 무엇을, 어떻게, 왜

아이어링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현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실 때는 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과 그분 사업에 헌납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현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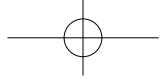
우리가 아이어링 회장님으로부터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모든 일이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봉사도 자기 만족이나 개인적인 유익, 또는 기타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돕는 사람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니파이를 통해 “모든 사람은 자애를 가져야 [하나니] 이 자애는 곧 사랑이라”(니파이후서 26:30)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것을 헌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은 현세적 은사와 영적인 축복들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텅 빈 찬장에서는 굶주린 자를 위한 음식이 나올 수 없습니다. 빈 지갑으로는 궁핍한 자를 금전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은 남을 격려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은 자는 가르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미약한 사람은 영적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The Celestial Nature of Self-Reliance,” *Ensign*, November 198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어링 회장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분의 사업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조용한 봉사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하셨을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이는 만물이 나의 것임이라.”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교리와 성약 104:16)

결론

조용한 봉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와 드러내지 않고 행하는 친절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도움을 주고 받는 회원들 모두가 성품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훌륭한 것들을 발현시키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J. Reuben Clark Jr., *Special Meeting of Stake Presidents*, Oct. 2, 1936. 참조) ■



풀 뿌리 신앙을 찾아서

부산 스테이크 영도 지부 바닷바람처럼 한결 같이

항 구 도시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자갈치 시장이다. 온갖 수산물이 모여서 사시사철 푸르게 꿈틀거리는 그 재래시장에서 버스를 타고 십여 분을 달리면 부산 안의 작은 섬, 영도에 다다른다. 영도는 부산 대교라 불리는 큰 다리와 영도 대교라 불리는 작은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영도 지부는 작은 다리에서 가깝다. 영도 지부의 자그마한 마당에는 언제나 바닷바람이 분다. 시원하고 칼칼한 바람이다. 대개의 부산 사람이 그렇듯 영도 지부 회원들의 성격도 바닷바람을 닮아 시원시원하다. 웃을 때는 화통하게, 진지할 때는 또 '역수로' 진지하다. 새해 첫 안식일의 주일학교 풍경이 꼭 그랬다. 새해

벽두라 인사할 일, 서로의 안부를 물을 일이 많아 시끌벅적 하다기도 물론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서로 간증을 전하느라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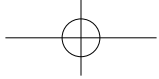
영도 지부의 역사는 꽤 깊다. 1979년 9월 6일, 당시 십이사도였던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부산 스테이크를 조직할 때 영도 지부도 조직되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이다. 한때는 백여 명 가까운 회원들이 참석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회원 수가 무척 많았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 안식일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십 년 사이 상황은 변했다. 기존 회원들 중 많은 수가 이사를 갔고, 일부는

저활동이 되었다. 바닷바람 가득한 영도에는 사람이 잘 모이지 않았다. 산복도로 주변 곳곳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다. 자연스럽게 회원 수가 줄어들었고 빈 주차장에는 예의 찬 바람만 불어댔다.

요즘 영도 지부 회원들은 웃을 일이 많아졌다. 열 대여섯 명 정도까지 떨어졌던 회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덕분이다. 1월 1일에는 서른세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현재 영도 지부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영도의 토박이이거나 오래 전에 뿌리를 내려 영도 바닷가 사람으로 산 세월이 제법 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영도 지부의 부침을 함께했다. 한



영도 지부의 회원들



영도 지부의 초등회 회장단과 어린이들



영도 지부의 주일학교 시간

가족처럼 세월을 보냈다. 때로는 서로를 위해 물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옹다옹하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정이 들어버렸다. 영도 지부 전체에 흐르는 따뜻하고 안온한 기운 속에는 가족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끈끈함이 묻어 있다.

1월 1일 새해 첫 날, 두 명의 청소년이 초등회를 졸업하고 각각 청남과 청녀가 되었다. 열 명이었던 초등회 회원은 그 수가 줄었고, 청남과 청녀는 각각 한 명씩 늘어났다. 영도 지부의 유일한 청남이었던 강동현 형제는 작년 EFY에서 자기 말고는 성찬 전달할 사람이 없기에 꼭 교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빼 놓았다. 그에게 청남 동생이 생긴 소감을 물으니 씩 웃을 뿐이다.

초등회는 영도 지부에서 가장 강한 조직이다. 인원 수도 제일 많다. 신앙개조를 외우는 우렁찬 목소리를 들어봐도 그렇다.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이 같이 노래하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공과를 듣는다. 서로가 서로의 교사다. 영도 지부의 막내인 민영이는 초등회 책상 위에 가만히 앉아 언니 오빠들의 노래를 병긋거는며 입으로만 따라 부른다.

영도 지부의 이성일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영도 지부는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와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 영도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한 영도 지부는 계속 될 것이고 회원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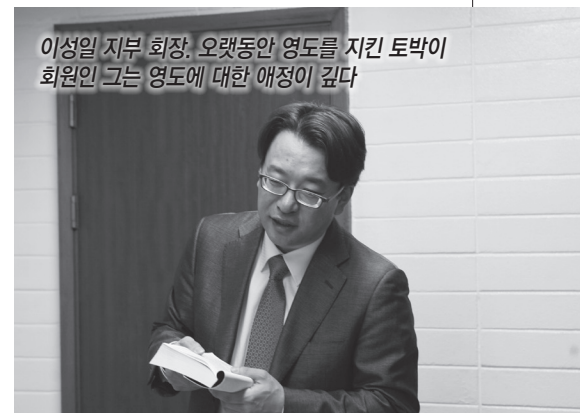
영도 지부의 성찬식은 재래시장처럼 흥겹고 즐거웠던 주일학교 시간과 달리 한없이 진지하고 영적이었다. 연단에 오른 회원들의 경쾌한 사투리만이 예배실을 가득 채웠다. 성찬식에 참석한 회원 중 절반이 초등회와 청소년이었다. 오랫동안 영도 지부를 지켜 온 회원들은 영도 지부의 미래인 그들에게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영도의 회원들은 꿈을 꾸다. 좁은 마당에 차들이 가득 들어차기를, 식구 많은 집 빨랫줄처럼 언제나 붐비기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작지만 뿌리 깊은 신앙이 영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꿈꾼다. 영도 지부는 힘을 내는 중이다. 밝은 미래를 위해, 막내 민영이가 한결 같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라고 또 자라 어른이 되어 영도 지부를 지킬 때까지. ■



강동현 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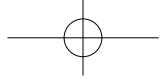
청소년이 된 박선민 형제와 강인아 자매



이성일 지부 회장. 오랫동안 영도를 지킨 토박이 회원인 그는 영도에 대한 애정이 깊다



영도 지부의 성찬식 풍경



엘마 오웬 테일러 장로의 조선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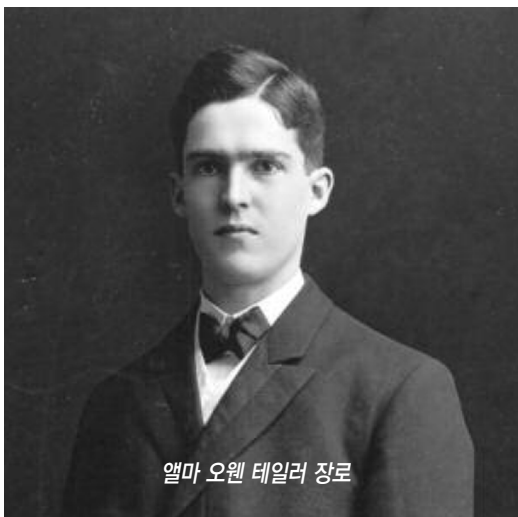
아시아 지역 선교 사업의 탐색

1852년 8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브리검 영 회장은 중국 선교 사업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세 사람을 중국에 파견했다. 그들의 이름은 호세아 스타우트, 제임스 루이스, 채프먼 던컨이었다. 성도들이 손수레를 끌고 솔트레이크 계곡에 집합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스타우트 장로를 비롯한 이들 세 장로들은 56일 동안 중국에 머물며 복음을 전파했으나, 안정된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전 세계에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중국 지역 선교의 시도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본격적인 선교는 이후 50년 동안 유럽과 그 외 지역의 선교 사업, 성도들의 시온 이주, 유타를 중심으로 한 북미와 멕시코 지역의 개척, 교회 내의 영적 개혁 운동, 미국 정부와의 갈등 해결과 유타의 주 승격, 십일조를 통한 재정 문제 해결에 매진하고 나서야 진행되었다.

일본 선교부 개설과 한국의 상황

20세기의 첫 해인 1901년 2월 14일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일본에 선교부를 열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를 선교부 회장으로 하여 루이스 에이 켈쉬 장로와 호레이스 에스 엔사인 장로, 그리고 열여덟 살의 엘마 오웬 테일러 장로가 일본으로 파송되었다. 엘마



엘마 오웬 테일러 장로

오웬 테일러(1882~1947) 장로는 1901년 5월 10일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랜트 장로와 테일러 장로 일행은 7월 24일 일본으로 떠났다. 테일러 장로는 이후 8년 5개월 동안 일본 선교부에서 히버 제이 그랜트와 호레이스 에스 엔사인 선교부 회장 아래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또한 선교부 서기로도 일했으며, 물문경을 일본어로 번역했다. 그 후 제3대 일본 선교부 회장을 지냈다.

1852년 첫 중국 선교 가능성 탐사와 1901년 일본 선교부의 개설 사이의 50년간은 유교 왕국 조선이 내외로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조선 해안에는 빈번하게 서양 이양선이 출몰했고,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8천 명이 처형된 천주교에 대한 박해, 이를 깨고자 한 병인양요(1866 프랑스 함선의 침범), 신미양요(1871 미국 함선의 침범)가

있었으며, 동학의 창도와 확산, 개항,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등의 정변, 외국의 내정간섭이 시작되었다.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을 느낀 고종은 1885년에 장로교와 감리교 등 개신교의 포교를 허용했다. 그 후 폐정개혁을 외치는 동학농민운동이 발단이 되어 청일전쟁이 발발했고, 명성황후가 일본인에 의해 시해되는 등 숨돌릴 틈 없이 사건들이 몰아쳤다. 이 사이에 일본은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1905년 외교권을 빼앗았다. 이때로부터 1910년 일본에 강점되는 시기 사이 망국의 위기 앞에 극도의 불안에 빠진 한국인들이 대거 기독교의 문을 두드렸다. 기독교는 한국의 시골 지역까지 급속히 확산되었다. 테일러 장로의 한국 방문은 이런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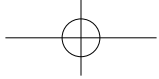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이 기사는 교회역사위원회에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주

1. 본 기사는 엘마 오웬 테일러 장로의 개인 일지에 기초한 것입니다.
2. 1897년 10월 12일부터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변경되었지만 본 기사에 나오는 '조선'은 당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좌측부터: 선교 사업 당시의 루이스 에이 켈쉬, 히버 제이 그랜트, 엘마 오웬 테일러, 호레이스 에스 엔사인



한국 성도의 소리



비매품으로 발간된 김옥남
자매의 시집 '달콤한 여정'

복음과 문학으로 하나된 가족

첫 아기가 만 8개월 되던 1978년 2월 18일 우리 부부는 침례를 받았다. 어린 소녀에서 십 대의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 존재의 목적을 알고 싶어 고뇌하였던 나로서는 복음이 주는 가르침에서 삶의 목적을 이해했고, 큰 기쁨을 얻었다. 하지만 함께 침례는 받았으나 하나님의 존재에 확신을 갖지 못했던 남편은 오랜 기간 교회에 나와도 간증을 키우지 못했다. 그간의 세월을 돌아보면 내 기도의 제목은 오로지 남편을 충실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남편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영감으로 블로그를 열어 주었다. 나는 남편에게 날마다 글을 쓰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물론 블로그를 통해서 내 간증을 수없이 전하며 단단히 걸어 둔 남편의 마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여 하루도 거르지 않는 남편의 수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하였고 복음 위에 문학이라는 도구가 더해져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었다. 남편은 수필을 통해 자기 반성과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편의 글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참된 복음이 주는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간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내 두 번째 시집인 '달콤한 여정'을 묶으면서 나는 남편의 수필 15편을 함께 발표했다. 결혼하는 작은딸의 사진 작품으로 표지 그림을 삼고, 단원을 가르는 간지마다 딸의 사진작품을 실은 내 두 번째 시집은 가족 문집이 되었다.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 우리 가족의 삶은 복음이 있었기에 참으로 행복하고 달콤한 여정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주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달란트에 감사드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린다. ■

〈김옥남 자매, 순천 지방부〉

침례의 물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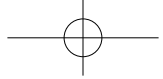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2010년 8월에 침례를 받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친구의 소개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갔을 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다. 다른 교회보다 훨씬 적은 회원 수도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예배 분위기가 달랐다. 평범한 회원들이 연단에 서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도 들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큰 거부감이나 망설임 없이 선교사님과 토론을 할 수 있었다. 물론 토론을 하면서도 확고한 간증과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굳은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토론을 하던 중에 선교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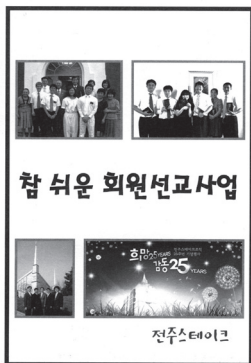
오랫동안 다른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후 나는 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고 침례를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침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참석한 SMYC는 내 간증을 키우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 개인적인 문제로 잠시 교회와 멀어졌을 때에는 지부 회원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나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의 부모님이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그분들의 말씀을 따라 다시 교회에 나왔을 때 나는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선교사님의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사랑을 보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서는 한 가지 소망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이다. ■

〈박푸름 자매, 제주 지방부〉



우리의 활동들 ①

'참 쉬운 회원 선교 사업'



전 주 스테이크에서 4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 활동은 부산 선교부에서 갖 귀환하고 돌아온 전임 선교사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각 와드별로 선교 책임자와 전임 선교사들이 한 달에

한두 가정을 정해서 그 가족들이 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자체적으로 '참 쉬운 회원 선교 사업'이라는 이름의 소책자를 만들었다. 이 책에는 회원들이 두 달에 걸쳐 실행할 수 있는 단계별 활동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첫째 달 2주차의 '모범 보여 주기' 항목에는 '집안 잘 보이는 곳에 성전 사진을 붙인다.'와 '자신의 자동차에 비회원이 함께 타면 교회 음악을 들려준다.' 등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이 들어 있다. 이 활동의 주된 목적은 회원들이 친구를 소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소개받은 친구를 교회로 잘 인도하도록 돕는 것이다. '참 쉬운 회원 선교 사업'이라는 활동 이름처럼 프로그램에 따라 충실히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인 이인기 회장은 말한다. 이 활동을 진두 지휘하는 이인기 회장은 이렇게 덧붙인다. "이 활동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달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하면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소화하려면 꾸준히 기도하고, 경전을 상고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즉, 회원이 먼저 변화하고, 그 후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활동의 핵심입니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각 단위 조직의 특별하고 독특하며 재미있고 영적인 여러 활동 모임 사례를 모집합니다. 다른 지역 회원들에게 소개할 만한 활동 모임이 있다면 aron1979@hanmail.net나 02-2232-1441(내선 564)로 제보해 주십시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2명/해외 11명



강신향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템플스퀘어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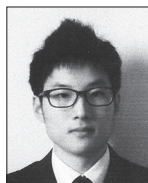
원민지 자매
인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
대전 선교부



김지은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템플스퀘어



이혜리 자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화양 와드
아이다호 보이스
선교부



박경민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서초 와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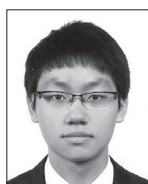
정모은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



서성용 장로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워싱턴 다시 북 선교부



하지현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일산 와드
템플스퀘어 선교부



송효빈 장로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허상아 자매
부산 스테이크
김해 지부
대전 선교부



안진혁 장로
대전 스테이크
선화 와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김만주 장로
권영숙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태백 지부 회장: 박성규(전임: 이승명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감독: 손용문(전임: 홍현길)

lds.or.kr을 통해서도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